

다구를 찾아서

12 자사호



꽃봉우리가 다호를 휘감다

명대(明代)에 찾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이 유행하자 이에 적합한 다호(茶壺)가 관심을 받게 됐다. 호(壺)의 재질과 형태, 크기는 전대(前代)에 비해 더욱 정밀하게 발전했는데 이는 탕법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명대에는 청자·백자와 같은 자기(磁器)로 만든 호뿐만 아니라 자사(紫砂) 재질의 호 또한 유행했다.

자사니료(紫砂泥料)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중국 장수성(江蘇省) 의흥(宜興)에서만 채굴되는 독특한 광물질이다. 자사로는 항아리, 화분, 필통과 같은 문방구와 다호, 찻잔 등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자사호가 가장 유명하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첫째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내기 때문에 통기성이 우수하며, 둘째 열전도율이 높고, 셋째 보존성이 뛰어난 것을 손꼽는다. 자사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호로서는 이상적인 재료로 평가 받는다.

의흥은 자사호 생산지로 화자되기 이전부터 명차(茗茶) 생산지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었다. 의흥은 당대(唐代) 행정명칭 양선현(陽羨縣)으로 불리던 때부터 '양선차(陽羨茶)' 생산지로 유명했다. 또한 '자순차(紫笋茶)'의 생산지로 유명한 장흥(長興)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을 만큼 그 일대가 상등품의 차를 생산했던 곳이다. 현재까지도 차의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는 차의 명소이다.

명대 초기까지만 해도 의흥은 주로 항아리, 술 단지, 독과 같은 생활구릇을 만들던 곳이었다. 금사사(金沙寺)라는 절에 있던 한 승려가 처음으로 자사호를 만들기 시작했다. 금사사에 오(吳)씨 성을 가진 사람이 머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었던 공촌(供奉)이 금사사 승려로부터 자사호 만드는 법을 익혔다. 공촌은 나무 진액을 갖고 자사호 모양을 흉내냈는데 이로 인해 공촌호는 울퉁불퉁한 나무껍질이 갈라진 모양을 갖게 됐다고 전해진다. 자사호 연원에 관한 설화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지만 자사호는 이미 북송대부터 만들었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명 초기 자사호 제작체제와 도형체제를 정립한 인물은 시대(時代) 대(大)이다. 그가 정립한 체제는 현대 자사호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활동 시기에 비로소 현재에도 사용되는 자사호 제작 도

구가 정비됐고 물레를 사용하지 않는 제작법도 이때에 정착했다.

시대(時代)의 호는 소산(小山)이며 가정(嘉靖, 1522~1566)에서 만력(萬曆, 1573~1619) 년간에 활동했던 의흥의 도공(陶工)이다. 당시 자사호의 사대(四大家)로 동한(董翰), 조량(趙梁), 원창(元暢), 시봉(時鵬)을 꼽았는데 그는 시봉의 아들이다. 시대(時代)는 아버지로부터 자사호 제작기법을 익혔고, 초기에는 주로 크기가 큰 대호(大壺)를 만들었다. 시대(時代)는 한동안 무동(無東 : 지금의 상해시 송강현) 일대에 머물면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했다. 그는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차의 품평과 토론으로 깨달은 바가 컸다고 전한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당시의 음다풍속(飲茶風俗)에 적합한 작으면서도 넓고 납작한 호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자사호는 호의 푸경·몸통을 단단히 밀착시켜서 틈이 없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시에 그가 만든 자사호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의 이름을 따서 '시호(時壺)'라고 불렀다.

또 그의 호를 가리켜 '그의 손길 닿는 대로 천 가지의 기이함과 만 가지의 형상이 빚어진다(千奇萬狀信出手)'. 궁궐 안에서는 대(大)의 호를 격찬한다(宮中馳說大形壺)'라고 했다.

시대(時代)의 옥란화판호(玉蘭花瓣壺)는 자사호 윗부분의 줄기 모양을 한 푸경 손잡이에서 시작해 전체적으로 꽃 봉우리가 천천히 다호 푸경에서 다호의 목·다호 몸통·다리틀 향해 펼쳐지고 있다. 다호의 주둥이·손잡이는 꽃줄기를 모방해 형상화한 것이며, 다호 내부 밑 부분까지도 호의 몸통과 연결해 여섯 장의 꽃잎 형태로 구성됐다. 호는 자갈색(紫褐色)이며 사질(砂質)이 은은하게 드러나면서 촉촉하고 맑고 매끈한 질감이다. 이는 시대(時代)의 초기(初期) 근문기형호(筋紋器形壺)의 대표작으로 호의 바닥에 '萬曆丁酉春時大彬制(만력 정유년 봄 시대(時代) 제작)'이라는 해서체 낙관이 있다. 현재 홍콩다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781호 제목과 본문 중의 '색·향기·미'는 '색향기미(色香氣味)'의 오기(誤記)로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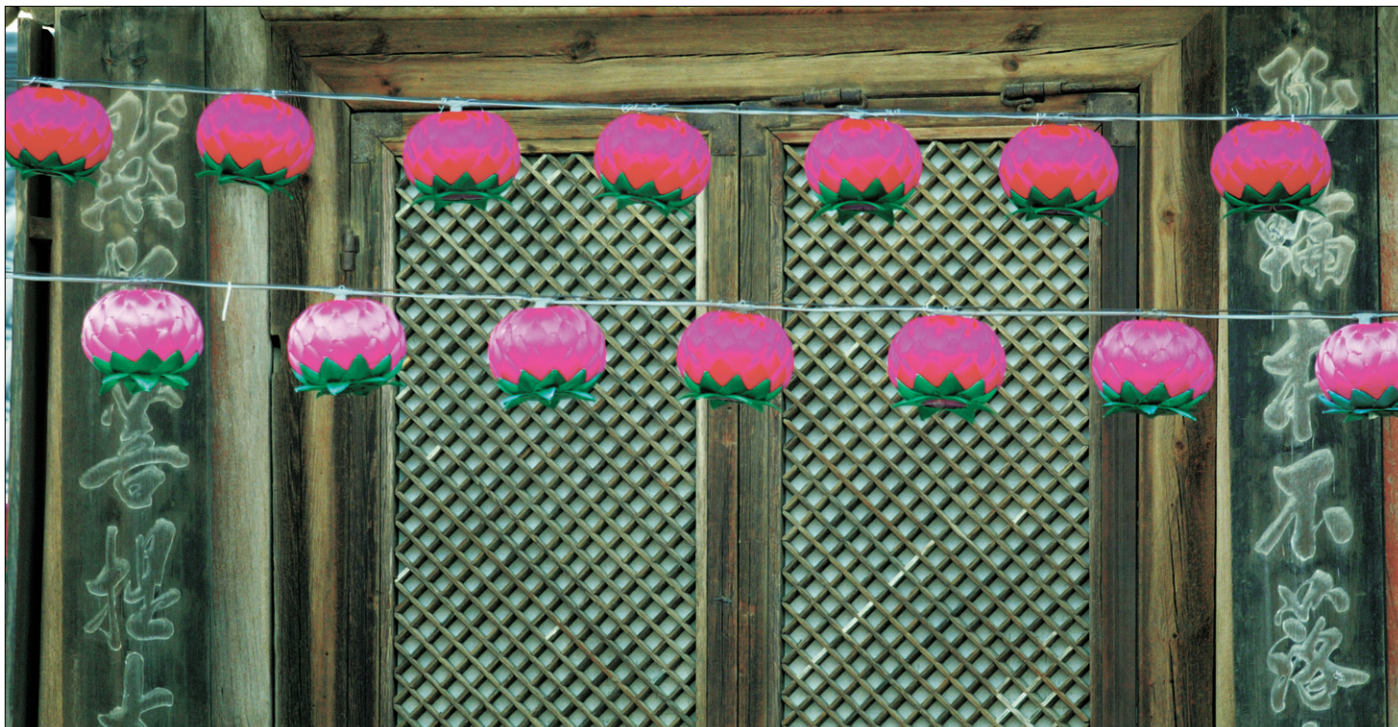
백기란 bdaal@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옥란화판호(玉蘭花瓣壺), 시대(時代) 대(大)의 작품. 홍콩다구박물관 소장 (香港茶具博物館 所藏). 높이 8cm, 바닥 지름 12.1cm.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3 빈자일등(貧者一燈)



등이 걸리기 시작했다. 법당에, 마당에, 거리에. 밤이 되면 어둠이 등불에 물들고, 등을 켜 이름들은 부처님을 기다린다.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 시집, 가난했던 여인 난타는 하루 종일 모은 돈 한 푼으로 기름을 사서 부처님께 등을 올린다. 밤이 되자 난타의 등도 다른 등과 함께 어둠을 밝힌다. 밤이 깊어 야인이 모든 등의 불을 꺼지만 아무리 힘껏 불어도 난타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

홀로 남은 난타의 등은 새벽까지도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마음씨와 지극정성으로 밝힌 등이다.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가난한 모습의 여인이지만 훗날 수미등광여래가 될 것이다." 이제 등을 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수많은 등들이 모두 난타의 등이기를...

옛 판화의 세계

금을 그어 경지를 보이다 (普庵禪師)

송나라 보암 선사(普庵禪師)는 재해를 막고 질병을 물리치는 현세이익(現世利益)에 영험이 뛰어난 대종의 존경을 받았다.

삼화는 동자들이 시립하고 있는 가운데 불자(佛子)를 들고 위엄 있는 모습의 보암 선사를 판각했다.

보암(普庵, 1115~1169) 선사는 남송(南宋) 때 임제종(臨濟宗) 승려로 장시성(江西省) 원주(袁州) 출생이다. 목암법종(牧庵法忠)을 받들어 그의 법(法)을 계승했다. 남천산(南泉山) 보화사(普化寺)에서 지냈고, 좌선을 행하고 <화엄경>을 공부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재해를 예방하고 질병을 물리치는 현세이익(現世利益)의 영험이 뛰어나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황해하는 선박들은 배에 그의 존상(尊像)을 모셔서 안전을 빌었고, 일본 임제종에서는 불전 뒤쪽에 그의 위패를 안치하는 풍조가 있었다. 저서에는 <어록(語錄)> 3권이 있다.

보암 선사가 호주·상주 지방을 유각할 당시, 목암법종 선사를 대위산에서 만났다. 이때 스님이 물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에 법종 선사가 불자를 곧추세웠다.

스님은 마침내 깨닫고, "신명하고 묘하고 여여하여서 태허와 다르지 않네. 만물을 조화하면서 모서리 주석에 걸림없네"라고 계승을 설했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에 알맞게 설법했고, 계승을 써주기도 했다. 병으로 앓는 사람이 있으면 풀을 꺾어서 약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은 병이 치유됐다. 이로 말미암아 먼 곳의 신도들이 돈을 기부하고 쌀을 보시했다.

가난한 사람은 울력으로 마음을 보여 절집을 크게 새로 지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낙성했다.

예나 지금이나 보시할 돈이 없는 신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힘을 보시해 절집을 크게 새로 지어 낙성했다"는 본문의 내용을 깊이 새겨 실천한다면, 보시로부터 생기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보암 선사(普庵禪師). 불암사 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교육내용

	내 용
불 교 교 리	① 경(아함·방등·반야·법화·열반·화엄경) ② 율(4분율·5분율·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유식·3론·기신론) ④ 선(위빠사나·명상·선 실습) ⑤ 포교론(군법당·교도소 등) ⑥ 밀교
불 교 의 식	① 조석예불·종성기도 ② 불공·시식 ③ 송주·장엄염불·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다도·등공예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3일 (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기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원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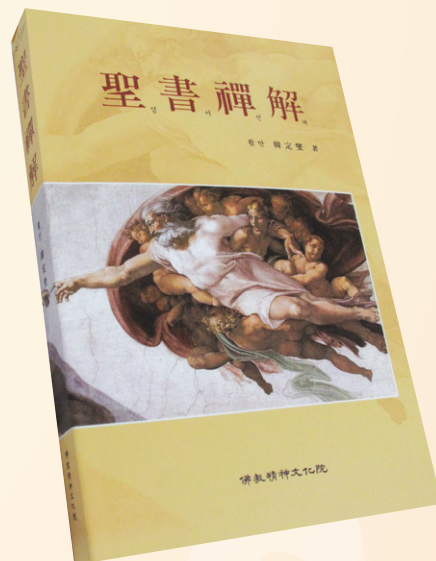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식발·수계

◆ 교 수 : 활안·도기·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성서 선해 (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현두성전 우파니사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